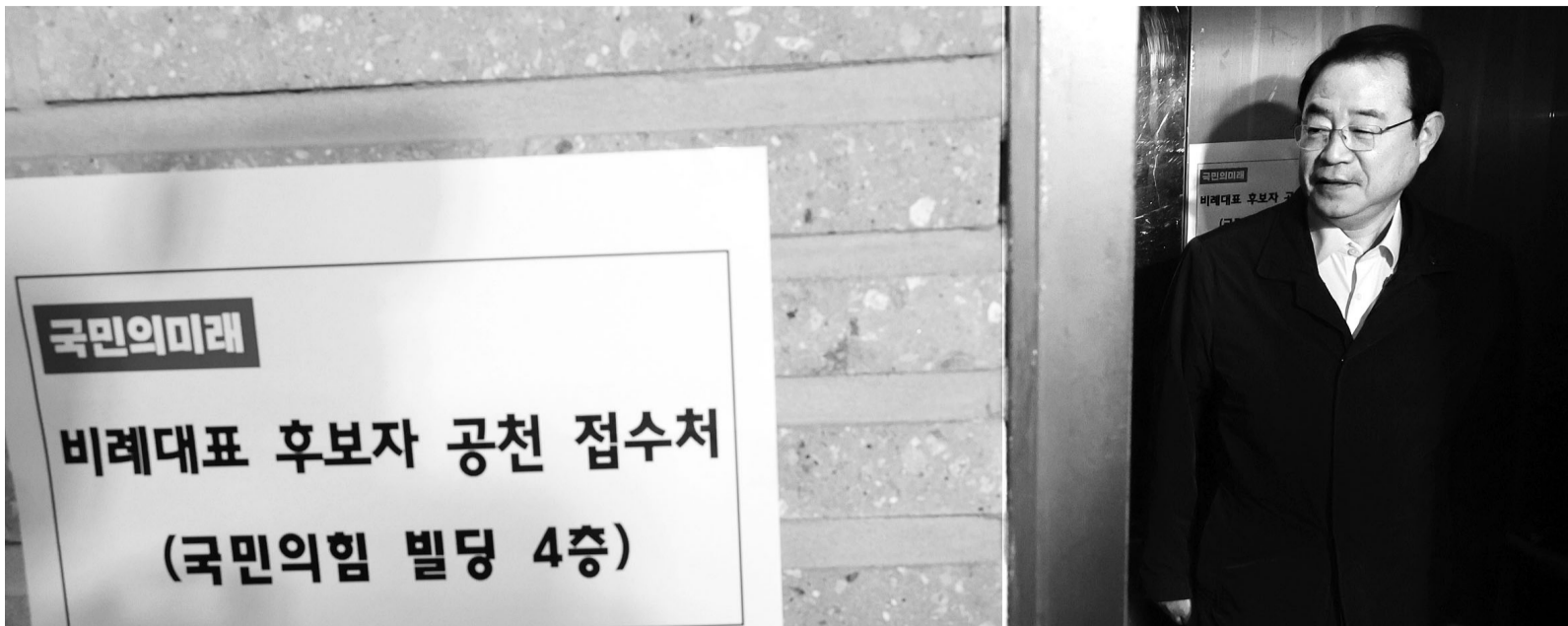


국민의힘 “현역 의원 교체율 31%”



국민의힘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이 6일 오전 여의도 당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출마·낙천 35명...쌍특검 부결 후 현역 탈락 증가 지적도

국민의힘은 정영환 공천관리위원장은 6일 “불출마 선언을 포함한 현역 의원 교체율이 31% 정도 된다”고 강조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까지의 공천 상황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이번 토요일(9일)에 발표되는 경선 결과에 현역이 11명 들어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한 35% 정도 되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당에 따르면 지역구·비례대표 현역 의원 114명 중 현재 불출마·낙천한 사람은 35명(30.7%)이다. 당 요청으로 지역구를 바꾼 의원들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다.

김근태 김예지 김웅 김은희 김희국 박대수 우신구 윤두현 윤주경 이달곤 이명수 이종성 장재원 정경희 최승재 최연숙 최준식 홍문표 등 18명이 불

출마(경선 포기 포함) 의원으로 분류된다.

경선 과정에서 탈락했거나 컷오프(공천 배제)된 의원들은 김병욱 김영선 김용환 김하근 류성걸 서정숙 안병길 양금희 유경준 이주환 이채익 이태규 임병헌 전봉민 조수진 최영희 홍석준 등 17명이다.

정 위원장은 “시스템 공천이지만 생각보다 교체율이 좀 나오는 것 같다”며 “이번에 초선들이 많이 남아갔는데, 지역구 관리가 잘 안되면 경쟁력 있는 신인이 왔을 때 그렇게 남아갈 수 있는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쌍특검(김건희 여사-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표결이 마무리되자, 현역 의원 탈락자가 늘어났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는 시스템대로 시기에 따라 해오다가 막판에 현역 컷오프가 많아졌다. 계산하거나 해서 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서울 강남병 현역인 유경준 의원의 컷오프 사유와 관련, “서초·강남은 새로운 인재를 발굴하는 데 포커스를 뒀다”며 “유 의원의 본인이 원하면 (지역을) 재배치하도록 컨택(접촉) 중”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울 강남병 태영호 의원, 강남을 박진 의원, 서초를 박성준 의원 등이 모두 지역구를 옮겼다고 설명했다.

서초갑에 재공천을 받은 조은희 의원의 경우엔 보결선거로 들어온 ‘0.5선’이어서 배려했다고 덧붙였다.

유 의원이 ‘유승민계’로 분류돼 불이익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게 아니고 전체적인 틀, 구상에서 그렇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유 의원은 전날 현 지역구인 강남병에 당 영입 인재인 고동진 전 삼성전자 사장이 우선추천(전략공천)되면서 컷오프됐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총선 브리핑

양종아 “주민들 의견 청취 후 정책 반영”

광주 북구를 예비후보

4·10 총선에서 광주 북구를 출마하는 국민의힘 양종아 예비후보가 선거구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 주민 고충을 듣고 공약으로 만들 예정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양 후보는 6일 출마 선거구 행정복지센터를 돌며 동장과 주민들의 건의 사항을 들었다. 동장과 주민들은 동 민원회 숙원 사업, 고충 등에 대한 해결책을 요청했다.

국회의원 후보가 행정복지센터를 순회하며 주민 애로사항을 청진한 것은 이례적이어서 동장들 사이에 호평이 쏟아진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민주당 ‘땀밭’인 광주에서 국민의힘 소속



으로 나온 후보가 발로 뛰는 선거운동을 보여주고 있어 주목된다는 평가다.

양 후보는 “광주는 국민의힘에게 정말 어려운 지역”이라면서도 “하지만 열심히 지역민들을 만나고 있다. 주민 한 분 한 분의 소중한 의견을 듣고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서로 싸우만 하는 정치가 아닌 생활에서 느끼는 정치를 하겠다”며 “주민들의 불편함을 바로 해결하는 ‘생활 정치’를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박지원 “기본소득·농어민 삶 국가 보장 도입”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

박지원 민주당 해남완도진도 예비후보가 6일 총선 출마를 선언하고 민주당 공천 경쟁에 본격 뛰어들었다.

박 예비후보는 이날 오후 출마 선언을 통해 “오늘이 인생의 가장 젊은 날이라는 자세로, 내일은 남은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는 각오로 치열하게 일하고 싸우겠다”며 “새봄, 해남·완도·진도에서 새 시대를 열어달라”며 지지를 당부했다.

박 예비후보는 “지역은 지방소멸, 기후 위기에 직면해 있고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경제, 남북관계, 외교 등 총체적 위기”라며 “사람, 지역, 정책, 정치, 국가도 다 바뀌어야 하는 비상한 해법이 필요



하다”고 지적했다.

박 후보는 출생기본소득 도입, 기후 재원에 노출된 농어민 삶을 국가가 적극 보호하고 국가 모든 행정에 고효율, 저출산 실태에 따른 가중치를 의무적으로 반영토록 하는 한편 가정 출입국 이민청 호남분부를 신설·유치하겠다는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해남·완도·진도를 ‘기회, 생명, 풍요’의 땅, 정치도 경제도 으뜸가는 ‘남도 1번지’로 만드는 도우미가 되겠다며 “일할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김지우 기자 dok2000@kwangju.co.kr

윤재옥 “국힘 이유 없는 컷오프 줄어”

YTN 뉴스 인터뷰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6일 “정부와 여당이 함께 일할 수 있는 정도의 의석수 확보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YTN 방송에 출연, 4·10 총선의 목표 의석수 질문에 “목표 의석수라는 숫자를 정해놓지는 않았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지금 윤석열 정부가 일하는 데 국회 의석수 부족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며 “그 숫자(의석수) 때문에 21대 국회에 입법 폭주가 난무하고, 정부와 여당이 교체됐지만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집권당이면서도 의석수가 적은 소수당이다 보니 국정 운영에 필요한 입법이 이뤄지지 못하고, 압도적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의 ‘입법 폭주’에 골라당한다는 것이다.

윤 원내대표는 “이런 의석 비율이 어떤 문제를 가져오는지 국민들이 눈으로 잘 보셨다”며 “22대

국회에서 민생을 누가 더 잘 챙길 것인지, 또 국가 안보를 누가 더 잘 지킬 것인지, 이런 관점에서 21대 국회의 문제점을 표로 심판해 주시길”이라고 예상했다.

박바지에 다른 당의 총선 공천과 관련해선 “시스템 공천이라는 것을 보수(정당)에서 처음 도입하다시피 했다”며 “이유 없이 탈락하거나 컷오프되는 사례는 많이 줄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공천하는 데 있어서 가급적 당 비대위원장이나 대통령실이나 이런 외부 요인이 작용하지 않는 데 아주 신경을 많이 썼다”고 설명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천 과정에서 이번엔 결과가 잘못된 의원님들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고, 또 원내대표로서 지켜드리지 못한 미안함을 가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원내대표는 자신이 3선을 한 지역구(대구 달서구)에서 단수 공천을 받았지만, 옆 지역구(달서갑)의 홍석준 의원은 컷오프됐다. 홍 의원은 이날 당 공관위에 이의를 제기했다.

/연합뉴스

‘광주 북갑’ 정준호 사무실 압수수색

광주지검, 전화 홍보원에 일당 지급 의혹

광주지검은 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된 더불어민주당 광주시 북구갑 선거구 정준호 예비후보와 사무실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앞서 선관위는 정 예비후보 측이 경선 과정에서 전화 홍보원 다수에게 일당 10만원씩을 지급하거나 하는 등 불법전화방을 운영한 데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광주지검에 고발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광주 북구갑 경선 후보였던 조오섭 국회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 측의 불법전화방 운영으로 경선 결과가 뒤바뀌었다. 실제 1, 2위 간 1.6% 차이밖에 나지 않았고 이같은 불법행위가 경선 결과에 결정적으로 작용했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또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야를 떠나 검찰에 의해 후보 사무실과 자택까지 압수수색에 나선 것은 처음이다”

며 “민주당 중앙당이 불법 선거운동 결과, 10%의 청년 가산점을 적용받아 1%대의 차이로 경선 1위를 탈취한 후보의 자격을 박탈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압수수색 전 날 알 수 없는 이유로 중앙당 당무위원회 인준 절차에서 북구갑 선거구가 제외됐고, 익일 오전 곧바로 압수수색이 진행된 것은 특정 세력의 개입 의혹이 강하게 든다”며 “중앙당 선관위는 본건 혐의 사실과 경선 결과의 인과관계가 없음을 고려해 정상적인 공천 절차를 진행해달라”고 말했다.

광주지검은 이날 공식 입장을 내고 “선관위 고발 사건에 따라 수사를 진행한 것”이라며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따라 정상 절차에 집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정병호·김해나 기자 jusbh@

이낙연 광주 지역구 10일 공개

이낙연 새로운미래 공동대표가 오는 10일 광주에서 열리는 ‘필승 결의대회’에서 출마 지역구를 공개한다.

이 공동대표는 6일 여의도 당사에서 “10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필승 결의대회를 열게 됐다. 그 자리에서 출마 지역구를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표는 지난 4일 광주 출마를 선언했지만 “민주당 경선에 영향을 주지 않으면 좋겠다”며 구체적인 출마지를 밝히지 않았다.

지역정가에서는 이 대표 출마 지역으로 광주 서구를 거론되고 있다.

이 공동대표는 민주당 경선 종료 후 출마지를 발표할 예정 아니었느냐는 질문에 “마냥 늦출 수 없고, 끝나고 난 다음에 하겠다고 한 적은 없다. 민주당 경선이 제 지역 선택에 영향을 주지 않기를 바란다”고 한 게 전부”라고 말했다.

/김해나 기자 khn@kwangju.co.kr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안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풍수·사주

수강생 수시모집 및 상담

기운을 바꾸는 풍수~!

주택, 사업장은 물론 산소까지, 있는 그대로의 상태에서 보다 좋은 터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개강 (6개월과정)

- 일 시: 2024. 3. 13(수) 오후 7시
- 장 소: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교육장 (무등로478-1 : 산수오거리→무등산방향 두리보석2층)
- 수강료: 풍수+사주 = 20만원(매월)

공개강좌 (무료)

- 일 시: 2024. 3. 6(수) 오후 7시
- 장 소: 상동(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교육장)
- 대 상: 누구나 (선착순 00명)

컨설팅(전문상담) 분야

- 전기비법 대공개
- 기검풍수 비법 교육
- 분묘, 이장, 남골당 및 수목장 수목과 풍수
- 음택, 양택의 풍수 감정 및 비법
- 사업(장사) 부진의 풍수적 진단
- 사주 교육 및 감정(사주, 공합, 택일 등)
- 작명(신생아, 개명, 상호 등)

심미운기풍수지리학회
010-3146-6370, 010-2246-1508

건물·주택 지붕공사, 스틸방수, 리모델링

건축시공, 설계, 견적, 리모델링, 상담문의

- 칼라강판 지붕공사
- 주택(외, 내부) 리모델링
- 옥상스틸방수
- 전원주택신축
- 공장신축
- 건물 리모델링
- 징크판넬시공
- 창호(샷시)교체

MD 모던건설 시공문의 전상하 T. 062)531-3530, H. 010-9229-3530
사무실: 광주시 북구 자미로45(신안동) 공: 광주시 서구 서항2길3(서항동)